

+ 이창형 · KBS 예능기술팀 기술감독

지상파 방송의 위기 대책이 시급한 2009년



미래의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방송기술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파 관리공사의 추진 의도와 디지털 전환 업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에 떠오른 해는 어제의 해와 변함이 없지만, 2009년을 시작하는 해는 어느 해보다도 희망을 주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난해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로 얼룩진 악몽 같은 해였다. 방송가에 몰아붙인 정치인들의 인사태풍은 방송 민주화의 역사를 후퇴시켜 놓았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 위기와 경영위기가 가속되었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고 지치게 만들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09년은 방송사의 재정불안도 해소되고, 공정성과 공정성도 확보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방송가를 휩쓸고 있는 불안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사들의 재정압박은 금년에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사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임금감이나 구조조정이란 말들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 재정불안은 곧바로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궁여지책으로 제작에 투입되는 외부 MC를 줄줄이 하차시키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연예인들에 대한 과도한 출연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갈수록 방송사의 수익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어 제작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 뻔한 일이다.

작년에 출범한 IPTV가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과 IPTV 방송이 지상파 방송의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다. 지난해 케이블 방송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전송하면서 성장해 왔듯이 이제는 IPTV에 지상파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과 IPTV는 항

후 지상파 방송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도 신문과 방송의 겸업 추진과 재벌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기업 위주로
통과시켜 방송의 공공성은 더욱 훼손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
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
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방송사에게 디지털
전환을 빨리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소속 한 의원은 “지난 연말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2012년
까지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다는 지
적이 나왔다”며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2012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
우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방송 재하가와 연계,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방안들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난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전파관리공사를 추진
한다는 목소리다. 작년 말부터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에
서 언급하고 있는 전파관리공사는 한마디로 KBS와 MBC

의 송·수신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에 실패했던 송신공사와 다
를바 없는 내용이다. 지난해 ‘KBS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이 구체화하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통합해 놓았다. 통합된 법의 의미는 방송과 통신을 동일한 위치에
서 취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방송 사
업자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송법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민주적인 여론 형성 등에 대한 내용들이 훼손될 수 있
는 법안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방송사도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론하고 있는 전파관리공사도 방송통신기
본법으로 압박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방송기술인들은 과거에 실패한
송신공사 정책을 다시 시도할 경우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덕담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울한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방송환경들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방송기술 가족 여러분과 함
께 고민해 보고자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금년에는 무엇보다 경제가 안정되어 방송가의
불안한 재정도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송가에 몰아붙인 질은 안개들을 걷어내
기 위한 타결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방송기술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방송환경 변화
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
히, 우리 방송기술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파관리공사의 추진 의도와 디지털 전
환 업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